

여수 '한국관광의 별' 선정

여수시가 올해 '한국관광을 빛낸 별'에 선정됐다.

여수시는 관광발전에 기여한 자치단체로 선정돼 최근 엠베서더 인천 호텔에서 '2018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해 관광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개인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 관광자원을 발굴해 홍보하고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여수시는 아름다운 해안과 365개의 보석같은 섬이 있고, 이순신 장군과 민초들의 구국충절의 흔적이 살아있는 역사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수밤바다를 테마로 낭만버스킹, 낭만버스 등 여수만의 관광콘텐츠를 선보이며 관광도시로 급성장했다.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젊은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됐다.

시는 최근에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목표로 섬 관광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금요도비렁길, 하화도꽃섬길 등 특색 있는 탐방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며 생태·휴양 관광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곡성 공무원 멘토링 최종보고회

곡성군은 최근 섬진강 기자마을로즈홀에서 신규공무원 23명과 멘토 공무원 23명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링 활동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멘토링 팀별로 지난 1년 간의 활동과 성과를 발표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은 물론 선배 공무원들의 경험과 신규 공무원들의 특색 튀는 생각이 담긴 다양한 정책으로 보고회장은 활기를 띠었다. 각 팀의 발표는 평가위원들에 의해 노력도와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가 진행됐고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다.

곡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과 조직 생활 융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 간 멘토-멘티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부 061 - 743-4200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3601-2060

여수 고소천사벽화마을 교통지옥 '몸살'

카페·펜션 등 우후죽순 들어서 주차난 가중 주민들 '생활불편' 호소...시 대책마련 나서

여수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손꼽히는 고소천사벽화마을이 건물 신축공사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소천사벽화마을은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동네 곳곳에 카페와 신축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주민과 관광객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고소동은 지난 2012년부터 화려한 벽화마을로 재탄생해 현재 여수시의 대표 관광지 자리매김 했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는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마을은 활력을

을 되찾았지만 원주민들의 삶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실제 고소동 일대 곳곳에는 아파트차치위원회 명의의 '조망권 침해하는 건설행위, 강력히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또 건물 벽과 전봇대 등에는 고소동 주민 대책위가 내건 ▲커피숍 옥상 영업단속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 ▲일방통행 보행로 확보 ▲마을버스 운행 ▲금연거리 지정 검토 ▲공영주차장 확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특히 벽화마을이 카페 거리로 활성화되면서 주차난은 물론 신축 공사차량으



여수시 고소동 천사벽화마을이 공사차량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원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로 먼지와 소음 등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고소동 주민들은 "좁은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교통 정체가 심각해진다 보행자들이 걸어야 할 공간도 없다"며 "시는 하루빨리 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변경해 주고 원주민들의 주차공간과 보행로를 확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들은 "주차난뿐 아니라 소음과 차량 매연으로 몸살을 앓는가 하면 쓰레기를 집안에까지 버리는 관광객

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중앙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고소천사벽화마을 교통 개선(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일방통행 지정, 거주자 전용주차구역과 보행로 설치,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한 시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먼저 우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일교회 주차장에서 한신아파트 입구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70면 거주자 전용주차구역 지정, 보행로 확보 등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조기철·이주연 기자



광양 어린이 안전 '대통령상' 수상. 광양시는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회 어린이안전대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광양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간헐 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보급, 어린이 안전과 돌봄 체계 구축, 보육비 부담완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시설 장난감 세척·소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역사 앞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된다 문화재생사업 추진 2020년 준공 목표

광양시가 옛 광양역사 부지 앞에 있는 폐산업시설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시 등 콘텐츠와 건축리모델링 설계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추진업체를 선정했다.

폐산업시설은 전남도립미술관 부지 앞에 자리한 연면적 1,363㎡의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1970년대 지어져 물류창고로 활용해오다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광양역이 이전되면서 현재는 일부 건물만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은 가구공장 등이 입주해 있으며

건물이 낡아 도립미술관이 준공될 경우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365일 누구나 와서 문화와 예술의 판을 벌인다는 의미로 '판365'라는 주제로 연출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공간은 공연장과 연습실, 기획 전시실, 방문자센터 등으로 구성되고 외부에는 휴게공간과 야외광장 등을 조성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광양시는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에 맞춰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고흥 공무원 '근평 조작' 사실로

감사원 전임 군수 시절 조작정황 확인 감사관 파견 인사팀 하드디스크 분석

고흥군이 박병중 전 군수 재임 시절 직원 근무성적평가(근평) 순위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이 감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고흥군에서 민선 5~6기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 관계자들은 근평에서 특정 공무원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 누군가 임의로 순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초 감사기간을 연장하고 감사관 5명을 고흥군에 보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고흥군 행정과 인사팀 컴

퓨터 3대를 수거해 전남지방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하드디스크 내용을 복사해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병중 전 군수의 휴양림 개인사용과 인허가 개발사업 등 민선 7기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제기한 부적절한 행정사례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 근평 조작과 관련, 지난 2016년 해남에서는 박철환 전 군수가 뇌물을 받고 인사기록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이두현 기자

순천문화재단 내년 상반기 출범 속도

2년만에 이사진 구성 추진

순천문화재단이 2년여 만에 이사진 구성에 나서는 등 재단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0일 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이사진 구성을 위한 심사 평가 방식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순천문화재단은 순천시가 지난 2016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을 추진했던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20일 순천문화재단 임원 14명(이사 13명·감사 1명) 공개 모집 결과, 55명이 응모해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에는 지역의 교수와 예술인, 언론인 등을 비롯해 광주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인사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심사를 거쳐 13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 2년의 이사는 무보수며 상임이사는 월 1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원된다.

사무국은 5급 상당의 사무국장 1명과 6급 상당의 탐장 3명, 팀원 6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사진이 꾸러지면 창립총회를 열어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남도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를 받은 뒤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

클릭! 고흥 소식



보성읍 희망드림협 '사랑의 쌀' 기탁

보성읍 희망드림협의회(위원장 조계연, 임광호)는 지난 10일 읍사무소에서 '사랑의 쌀 나누미' 전달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사랑의 쌀 나누미' 행사는 지역주민, 출향향우, 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해 6,720kg의 쌀을 모아 기부했다. 후원 받은 쌀은 관내 사회복지 시설과 경로당, 복지사각지대 조사에서 발굴된 취약계층과 기초수급자 가구에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



고흥 13개 단체 출산장려 협약

고흥군은 최근 청내 회의실에서 고흥군수협 등 13개 기업·단체와 '출산장려 행복한 동행 민·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련 기관과 업체, 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관내 13개 단체는 내년 1월부터 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미역, 소고기, 쌀 등 출산 축하물품을 지원한다. /동부취재본부=진준연 기자



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도서 전달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는 최근 지역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희망도서 400여권을 상암초등학교, 묘도분교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희망도서는 학습교재, 아동필독서 등 다양한 도서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미래인재양성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여수발전본부 이동원 본부장은 "아이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구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섬진아트홀에서 제9회 사업보고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센터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성과 보고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사업에 기여한 우수봉사자 등에 대한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류동수 센터장은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공연프로그램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